

# 함께하는 가치의 이야기 '호접지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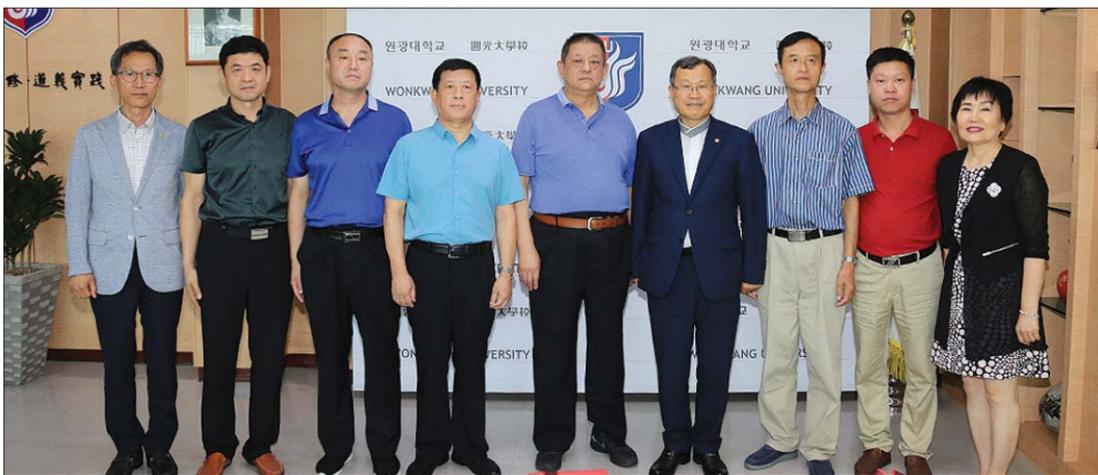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서 최미남 개인전 개최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 서울관에서 내일부터 22일까지 '최미남 개인전'이 열린다. 최미남 작가는 원광대학교 한국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조형미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이번 전시는 작가의 7번째 개인전이다. 이외에도 국·내외 150여회의 단체전과 다양한 기획·초대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신미술대전 한국화 대상, 세계미술대전 특선을 수상했으며, 현재는 (사)한국미술협회 전북지회, 전주지회 회원, 한국현대미술작가연합회 전북지회장을 맡고 있으며, 완주 산속대북합문화공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작가는 나비를 그린다. 나비의 외형적 요소에 인간의 희로애락을 투영시켜 나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상징성을 인간의 삶으로 담아내 다시 작품 속에 투영시킨다. 눈으로 보이는 관념적 화려함 속에 다양한 삶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의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혼자보

다는 함께 공유하는 삶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음을 말하고 있다. 초기 작품에 나타나는 나비는 과감하다. 꽃의 부제로 등장하던 나비를 실물의 수십 배의 크기로 화폭에 가득 채워 형태 외에 맨눈으로 보기 어려웠던 나비 날개에 담긴 문양과 색조의 이름 다움을 경이롭고 입체적으로 극대화했다. 이는 화려함 속에 가려진 인간의 고뇌하는 모습은 더 처절할 수밖에 없음을 내포하고 있다. 초기작인 <독백> 연작을 통해 슬슬한 인간의 단면을 표현했다면, 이번 전시의 <호접지몽도>는 함께하는 가치를 이야기한다. 접중적으로 늘어나는 나비의 숫자가 말해주듯 스스로 고립이나 자괴감, 마음 속 단절이란 고난들을 떨치고 일어나 많은 사람과 함께하며, 나눈 공의 속에서 배려하고 돕는 아름다운 세상의 가치 실현에 진정한 삶이 녹아 있음을 작가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고 있다. /김진성기자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 채색 화법을 바탕으로 평면이 주는 단조로움을 허물고 주제를 표현하면서 입체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두텁게 칠한 밑 색 위에 색을 얹고 점과 선으로 수없이 겹친 표현을 간구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재료와 기법을 확장하고 본인만의 장식적 화풍을 만들었다. 또한 눈여겨 볼만한 것은 채색화 기법의 산수화 구현을 통해 산수화에 나비를 접목한 장식성으로 <내비산수>가 출현한 것이다. /김진성기자



2019년 한·중 서예교류전에 참여한 중국산동성요성시서예가협회 류연복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작가들이 교류전 전시작품 19점을 원광대에 기증했다.

## 한·중 서예 교류전 중국 참여 작가들, 원광대에 전시작품 기증

2019년 한·중 서예교류전에 참여한 중국산동성요성시서예가협회 류연복 회장을 비롯한 6명의 작가들이 교류전 전시작품 19점을 원광대에 기증했다. 2019 한·중 서예교류전은 (사)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한국과 중국의 서예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원광대 동양대학원 서예문화학과에서 국제교류전으로 기획해 열렸으며, 원광대 교수와 대학원생을 비롯해 중국 측 서예가 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원광대 LINC+미술관에서 열렸다. 전시 작품은 한국 20점, 중국 19점 등 총 39

점으로 다양한 서체와 서풍의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돼 관심을 끌었으며, 중국 작가들은 서예 경력이 40년에서 50여 년에 이르는 중견 작가들로서 양국의 서예 예술문화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19점의 전시 작품 모두를 원광대에 기증했다. 최근 총장실을 방문한 작가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한 박맹수 총장은 "수준 높은 작품을 전시하고, 직접 기증까지 해줘 감사하다"며, "작가분들의 뜻에 맞게 작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필이 많이 탄생한 지역으로 유명한

중국 산동성은 서예 유적지가 많고, 산동대학 서예과는 신입학 경쟁률이 100대 1에 이르는 등 서예수준이 중국 내에서도 최고인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이번 전시회를 주도한 동양대학원 서예문화학과 이승연 교수는 "침체에 있던 한국의 서예계가 서예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다시 부흥의 계기를 맞이한 가운데 이번 교류전은 매우 의미 있는 전시회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시회 및 참여 작가 간담회를 통해 서예계 정보를 교환하고, 한국 서예계의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음악이야기

왕궁초서 인도네시아 전통악기 앙그롱 기부 기념 연주회 열려

1948년은 일제 강점기와 조국 해방의 격동의 시절이다. 정봉운 선생님은 그해 2월 왕궁초등학교를 졸업한 제23회 동문이다.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음악이야기를 왕궁초등학교(교장 김복희)는 최근 모교와 후배에 대한 사랑으로 앙그롱을 기부해주시신 모교 제23회 동문이신 정봉운 선생님을 모시고 앙그롱 독주회를 가졌다.



정봉운 선생님은 일제 강점기와 조국 해방의 격동기인 1948년 왕궁초등학교를 졸업한 제23회 동문이다. 선배가 후배에게 들려주는 음악이야기 행사는 지난 3월 인생의 황혼을 마무리하고자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며 여행하던 정봉운 선생님의 왕궁초등학교 방문을 계기로 마련 되었다.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인도네시아 파견 근무 중 앙그롱이라는 악기를 처음 접하게 되었으며 이 악기를 국내에 처음으로 들여온 장본인으로 그 동안 국내 방송 뿐 아니라 일본 후쿠오카 음악문화제에도 초청되어 연주회를 가졌다. 앙그롱은 대나무를 깎아 만든 인도네시아의 독특한 악기로서 전통악기는 우리나라와 같은 음계를 가진 모습으로 변화했다. 이날 행사는 왕궁초등학교 교육가족과 왕궁면장, 왕궁농협 조합장, 왕궁우체국장, 왕궁중학교, 왕궁남초등학교장, 왕복초등학교장 등 왕궁지역의 기관장이 참여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모교를

그리워 하던 많은 동문들이 함께하여 성료되었다. 전북도교육청 지정 학교-마을 협력형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왕궁초등학교는 이번 연주회와 같은 마을 중심의 행사를 통해 마을 중심의 교육과정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왕궁초등학교 구하정 어린이는 "일제 강점기와 전쟁 등의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에 정봉운 선생님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가려고 늘 깨어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꿈을 이어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책을 읽는 것이었다고 하시며 후배들도 책을 가까이 하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정은성기자

## 전주시네마타운서 전북가족영화제 18일 개막

'제2회 전북가족영화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주시네마타운에서 열린다. 전북가족영화제는 자녀가 직접 제작한 영화를 함께 관람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 소통하며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오늘의 자리'를 슬로건으로 한 올해 영화제는 문화콘텐츠연구소 시네숲이 주최하고 전북가족영화제 조직·집행위원회가 주관한다. 전주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완주문화재단, 완주공동체미디어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가 후원하며, 전북교육청·전북대·전주대·우석대·원광대가 특별후원한다. 모두 4편인 개막작 중 하나인 '숨비소리'는 제12회 이주민 영화제 상영작이다. 이 영화는 21살에 제주도로 시집은 중국 출신 어린 신부가 결혼 3년 만에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 소수의 의견을 묵살되는 현실을 꼬집으며 정당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를 재밌게 연출한 '민주적 결의', 깊은 상처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담은 '지우개',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자란 소년의 낯선 남자와의 하루 동안의 동행을 그린 '생일선물' 등이다. '색선'으로 보면 원주문화재단 '예술 농부' 초대전 '인태' 색선은 3편, 비경쟁 부문 성장색선은 5편으로 선정했다. 관효민 집행위원장은 "이번 영화제는 일반 부문과 초대전, 비경쟁 부문 등 다양한 가족영화와 자녀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부모님과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진다"면서 "또 곧바로 가족 특강이 준비돼 있어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2017년 '전북겨울영화제', 지난해 '전북가족영화제' 및 '전주다년영화제' 등을 통해 적박한 영화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제작되는 단편 영화를 발굴, 상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정은성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